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영랑시문학상 조례' 제정 '문학 강진 브랜드' 기대 (전남일보 외 3.26.)	3
첨부파일(1)	3

'영랑시문학상 조례' 제정 '문학 강진 브랜드' 기대 (전남일보 외 3.26.)

작성일 2020.03.26 14:22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172

첨부파일(1)  보도자료.jpg 68 hit/325.8 KB [다운로드](#)

全南日報

2020년 03월 26일 (목)

'영랑시문학상 조례' 제정 "문학 강진 브랜드" 기대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을 이끌었던 전남 강진 출신 시문학파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문학을 매개로 한 '인문·문학 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조례는 시상의 범위와 운영위원회 구성·임기, 심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문학상 권위는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에 있는 만큼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심사위원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했고 심사위원의 임기도 당해 연도로 못 박았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영랑·현구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학상 운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김성재기자

남도일보

2020년 03월 26일 (목)

강진군, 영랑·현구문학상 조례 제정

공정한 심사·투명성 확보 근거 마련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을 이끌었던 전남 강진 출신 시문학파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문학을 매개로 한 '인문·문학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조례는 시상의 범위와 운영위원회 구성·임기, 심사위원 선임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문학상 권위는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에 있는 만큼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심사위원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했고 심사위원의 임기도 당해 연도로 못 박았다.

최치현 강진군 문화예술과장은 "영랑·현구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학상 운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목록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